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강윤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 생활예술전공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 년 7 월 14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예술전공 텍스타일 디자인과 의류학과를 복수전공 중이며, 2025년 가을 학기부터 2026년 봄학기까지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CSULB)에서 약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전공 및 교양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 뿐만 아니라 협업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습 중심의 수업을 통해 전공 역량을 향상시키고, 미국 대학의 교육 방식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학기에는 Foundation Two-Dimensional(ART 130), Intro Studio: Printmaking(ART 270), Intro Street and Club Dances(DANC 107), Introductory Textiles(FMD 253)를 수강하였습니다. Foundation Two-Dimensional 수업에서는 드로잉과 디자인의 기초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와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평면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색채, 구성, 형태 등을 직접 실습하며 디자인의 기본 요소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Intro Studio: Printmaking 수업에서는 판화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인쇄 기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제작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으며,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Intro Street and Club Dances 수업에서는 힙합, 재즈, 클럽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배우며 신체 표현 능력과 리듬감을 향상시켰습니다. 매 수업마다 새로운 안무를 익히고 공연 형식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으며, 전공과는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Introductory Textiles 수업에서는 섬유의 종류와 특성, 직조 및 염색 등 섬유 제작 과정의 기초를 학습하였습니다. 다양한 섬유 소재와 제작 방식을 이해하며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과 연계되는 기초 지식을 더욱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고, 이후 심화 염색 수업을 수강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6년 봄학기에는 Core Studio: Fiber - Dyeing(ART 317),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ady-to-Wear(FMD 252), Fashion Industry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FMD 255), Swimming I(KIN 125A), Design Materials and Tools(DESN 151)을 수강하였습니다. Fiber Dyeing 수업에서는 다양한 염색 기법과 섬유 재료를 활용하여 직접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Shibori를 비롯한 여러 방염 기법과 천연염색을 배우며 섬유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종 프로젝트에서는 바다를 주제로 의상을 제작하여 염색과 봉제, 소재 표현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ady-to-Wear 수업에서는 의류의 소재, 봉제 방식, 생산 과정 및 품질을 분석하며 의류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의류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세부적인 구조와 기능을 학습하였습니다. Fashion Industry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수업에서는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노동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주제로 팀 프로젝트와 발표를 진행하면서 영어 발표

능력과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Swimming I** 수업에서는 자유형, 배영, 평영 등 기본 영법을 단계적으로 배우며 수영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학기 말 실기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Design Materials and Tools** 수업에서는 목재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입체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아이디어 구상부터 모형 제작, 실제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디자인을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외에도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만난 친구와 1년 동안 꾸준히 교류하며 친분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미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식사를 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말과 방학을 활용하여 미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와 자연환경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Long Beach**와 **Los Angeles**를 비롯하여 **San Diego, San Francisco, Seattle, Las Vegas, Chicago** 등을 방문하면서 도시마다 다른 문화와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교실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현지를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의 마지막에는 **World Oceans Day**를 기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해양 환경 보호를 주제로 진행된 벽화 프로젝트에서는 리사이클링 의류 업체에서 기부 받은 의류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소재의 의류를 직접 재단하고 재봉하여 하나의 대형 벽면 작품으로 완성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여러 학생들과 협업하며 작품을 제작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환경과 예술을 접목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다양한 전공과 국적의 참가자들과 함께 협업하며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환학생 생활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였으며, 프로젝트는 완성한 뒤 **SeaWorld San Diego**에 전시되어 같이 작업한 학생들과 초대받아 오프닝 행사를 즐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 경험은 단순히 해외에서 공부한 것을 넘어 새로운 교육환경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전공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환학생 기간 동안 쌓은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학번(연도만) 및 전공	
과견시기	2025 학년도
참가 프로그램명	
자매교명	Universi
국가	
보고서 제출일	20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과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생활

UCM 에 오는 국제 학생이 많다보니 ELI, ISO 등 국제 학생 관련 부서나 동아리가 있어서 생활의 불편한 부분은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LI 부서에는 교환학생 담당부서 교수님들, 학생 근로자가 상주해있으니 모르는 게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메일을 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은 todd 와 ellis 두 군데에서 meal plan 을 사용할 수 있고, dining dollor 로는 스타벅스나 union 지하의 chick-fil-A, 스시 등을 tax 없이 살 수 있습니다. Crossing 기숙사는 방 안에 있는 주방에서 취식이 가능하여 코인육수, 블럭국, 각종 양념 등을 잘 사용했습니다. 월마트에서 다양한 양념을 팔고 있어서 요리는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마다 한인교회에서 한식을 제공해주시기도 합니다. 음식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crossing 앞으로 셔틀이 오는데,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기숙사는 Crossing 에서 1년 머물렀습니다. 다른 기숙사에 비하면 개인 방과 주방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방음은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편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1층 spin pizza 에서 파는 젤라또가 맛있었습니다.

-수업

수업은 2 학기동안 어학(Intensive English Program), 영어 전공, 그 외 타전공(미술, 정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어학(IEP)수업은 OT 주간에 영어/수학 시험(해당자)을 보고, 필요하면 배정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토플 성적을 제출했었지만 시험은 봤습니다.

American Culture 는 IEP 수업이지만 영어보단 미국 문화에 대해 쉽고 활동적으로 배우는 수업입니다. 국제/교환학생이 주로 듣고, 활동비를 내고 학기에 두어번 정도 외부 활동을 나가는 기회가 있어 편하게 들었습니다.

정규 수업은 대형 강의보다 3~12 명 정도의 소규모 강의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많습니다. 저도 알고싶진 않았는데 한 강의에 3 명만 있어도 수업이 개설됩니다. 통성명하기도 좋고 교수님 가까이서 단란하고 재밌게 한 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 전공 수업에서는 Amanda 교수님 수업이 좋았습니다. 교수님이 매우 친절하십니다. Grammar 외에 Young Adult Lit 같은 교직 관련 과목도 하셔서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특히 Young Adult Lit 에서는 지역 고등학생들을 초청하여 두어번 정도 활동 수업을 진행합니다. 에너지있고 특색있는 수업이라 교직을 준비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타전공 수업을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교환학생은 P/F 라 성적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으니 색다른 분야의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타전공 수업으로 Observational Drawing 과 Model UN 을 들었습니다. Observational Drawing 은 소묘 수업입니다. 미술 전공 수업이지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는 각자 준비해야 하지만 교수님이 사정을 이해하시곤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Maryanna 교수님 특히 친절하십니다. 재료는 UCM Store 보다 월마트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습비가 추가적으로 청구되니 강의실 선반과 창고에 있는 도구들도 빌려 써도 됩니다.

정치학 전공의 Model UN 수업도 추천합니다. 저는 이전 교환학생 보고서를 읽고 시카고에 가는 수업이라고 하여 호기심에 신청했습니다. 모의 유엔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어, 시카고 conference 까지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뜻깊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시카고에 간다면 정말 멋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MUN 홈페이지(amun.org)에서 관련 정보들을 볼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고 가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깔끔한 착장(옷, 신발) 들고 가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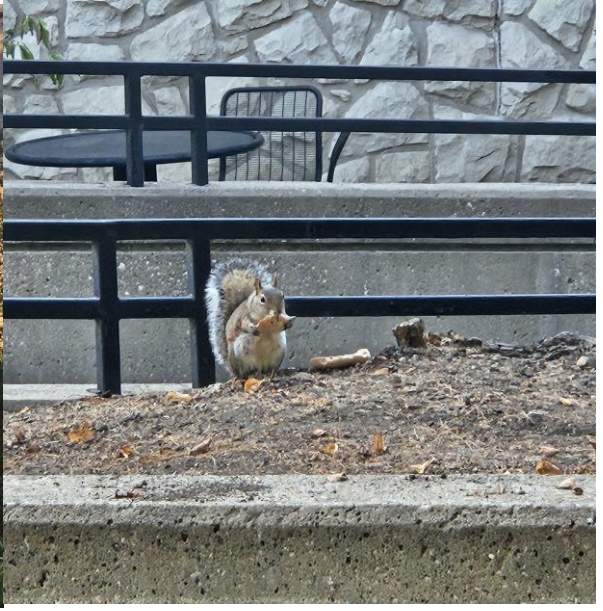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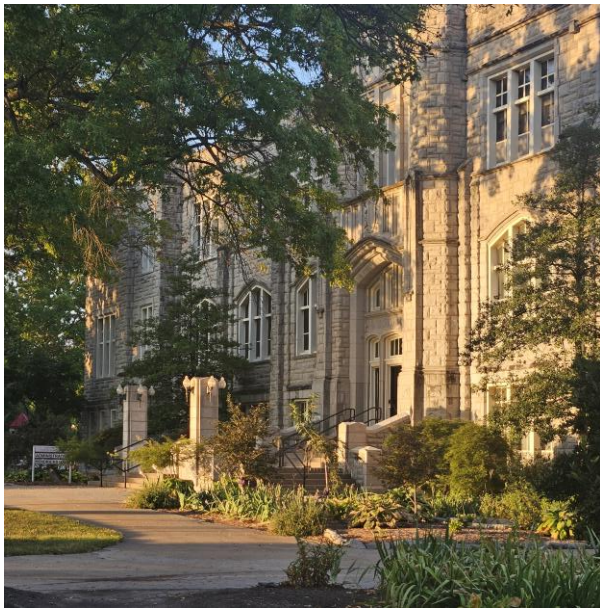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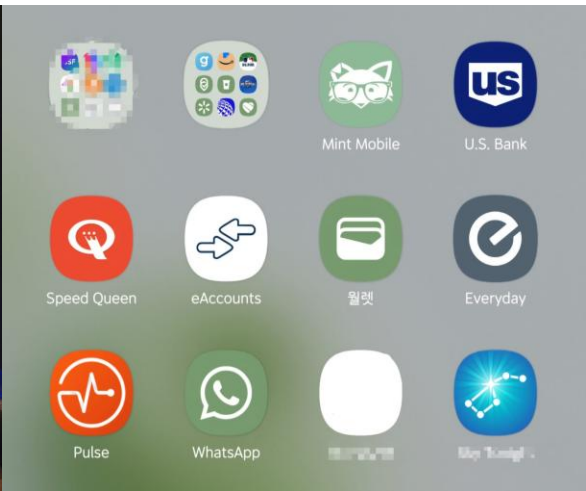
행사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농구, 배구, 풋볼 같은 스포츠 행사, 할로윈, 이스터 같은 기념일 행사, 그리고 각종 전공, 동아리, 단체에서 하는 행사 등 많았습니다..

그 중 연극&무용 전공에서 하는 연극 프로그램,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은 학기에 2~3 번은 했던 것 같은데 잘 챙겨봤습니다. 특히 연극은 영어 듣기에도 도움이 되고, 연출과 내용도 특색있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 무대를 같이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이라 행정이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불편함에서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1년동안 살 수 있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무턱대고 도전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학교 사진과 학기 중에 잘 사용했던 어플들 입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태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0 전기공학과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년 5월 14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환경]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는 Texas주 San Antonio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San Antonio는 9~10월에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 매우 더운 지역이지만, 겨울에는 드물게 눈이 오기도 합니다.

학교 주변 인프라는 아주 잘 갖춰져 있는 편은 아닙니다. Walmart나 Target과 같은 대형마트는 차로 이동하면 약 10분 정도 걸리지만, 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인타운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학교 주변에 한인마트 두 곳과 여러 한식당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주변 한식당들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한인마트에서 식재료나 음식을 구매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Central Market이라는 식료품점도 있습니다.

San Antonio에는 River Walk와 Pearl District 같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특히 River Walk는 서울 청계천 조성의 참고 사례로도 알려진 곳이며, Orientation 기간 동안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Six Flags라는 놀이공원도 유명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롤러코스터가 있고 규모도 큰 편이라, 한 번쯤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에는 멕시코와 유럽에서 온 international student들이 많은 편입니다. 반면 Asian student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영어를 자주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주, 식사]

학교 내에는 약 5~6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저는 첫 학기에는 Avoca에서 생활했고, 두 번째 학기에는 Hillside에서 생활했습니다.

Avoca는 아파트형 기숙사입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을 공유하는 구조이며, 총 2개의 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침실에는 2명씩 배치되어 한 호실에 총 4명이 생활합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Hillside는 1인실 형태의 기숙사입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약 15~20분 정도 걸리지만, 학교 내 셔틀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meal plan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학교 내에는 Chick-fil-A, 멕시코 음식점, 매점, Starbucks 등이 있으며, 교내 식당과 매점에서는 meal plan에 포함된 student points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학기 동안 생활하는 학생의 경우, 이전 학기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student points가 초기화되지 않고 다음 학기로 이월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활동]

저는 Mechatronics Engineering 전공 과목을 수강했으며,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는 펜싱, 배구, 농구, 헬스와 같은 체육

관련 교과목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강한 과목은 Chemical Principles I, Chemical Principles I Lab, Engineering Probability/Statistics, Microcontrollers/Embedded Systems, Computer Programming for Math and Sciences, Composition I, Electronics, Engineering Physics I입니다.

개인적으로 Composition I 수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writing class로, 학생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이 많고 발표 및 글쓰기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어로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에는 50개 이상의 student club이 있습니다. 학업 관련 동아리부터 운동 관련 동아리까지 다양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저는 체스 동아리에 가입하여 파티와 여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Student Engagement Center, SEC에는 학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있으며, 지하에는 당구대 두 대, PlayStation 약 8대, 탁구장, 그리고 여러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SEC 안에 “Luciano”라는 음식점도 있었지만, 2026년 전반기에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는 공실인 상태입니다.

[비용]

25년 하반기 비용입니다.

DESCRIPTION	CHARGES	CREDITS
Previous Balance	\$0.00	
Exchange Student Discount		\$18,225.00
International Insurance	\$891.00	
Exchange Student Program Fee	\$100.00	
Records Fee	\$50.00	
Student University Fee	\$1,100.00	
Banded Undergrad Tuition-Fall	\$18,225.00	
International Insurance	\$49.00	
Meal - Dining Dollars	\$875.00	
Meal Plan Tax	\$198.83	
Meal - Board	\$1,535.00	
Avoca Apartments	\$3,860.00	
TOTAL AMOUNT DUE		\$8,658.83

26년 전반기 비용입니다.

DESCRIPTION	CHARGES	CREDITS
Previous Balance	\$0.00	
Exchange Student Discount		\$18,225.00
Hillside	\$5,160.00	
Meal - Dining Dollars	\$875.00	
Meal - Board	\$1,535.00	
Meal Plan Tax	\$198.83	
Student University Fee	\$540.00	
Undergraduate Tuition - Spring	\$3,480.00	
Student University Fee	\$560.00	
Banded Undergrad Tuition-Sp	\$18,225.00	
Undergraduate Tuition - Spring	-\$3,480.00	
International Insurance	\$1,852.00	
Exchange Student Program Fee	\$200.00	
International Insurance	-\$926.00	
Exchange Student Program Fee	-\$100.00	
TOTAL AMOUNT DUE		\$9,894.83

CONTACT:

INSTALLMENT PLAN AMOUNT

저는 정규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tuition은 본교에서 부담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Avoca, 2026년 전반기에는 Hillside에 거주했기 때문에 학기별로 기숙사 비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장학금을 받아 금전적으로 큰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장학금은 공대생만 지원 가능한 장학금입니다.

생활비의 경우, 식비는 주로 meal plan과 student points로 해결했습니다. 친구들과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생각보다 개인적인 지출은 크지 않았습니다.

가을학기에는 Thanksgiving break와 같은 연휴가 있고, 봄학기에는 약 10일 정도의 spring

break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해당 학교의 대부분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집중되어 있어, 사실상 금요일부터 주말처럼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Austin이나 Houston 같은 주변 도시들을 다녀왔습니다. 두 도시 모두 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있어 큰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는 한 학기에 한국인이 1~2명 정도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3~4년 전에는 한국인 학생이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사용 환경이 적고, 영어 실력을 늘리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주변 인프라가 학교와 조금 떨어져 있어 차로 이동해야 하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다만 시내버스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를 활용하면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San Antonio의 지역적 특성상 멕시코에서 온 학생들이 정말 많고, 그 외에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그만큼 국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 인종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International Office에서 주최하는 활동에는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Orientation은 모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을 Orientation session에서 사귄 수 있고, 이때 만난 친구들과 교환학생 기간 동안 계속 교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할 때 Orientation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박은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역사콘텐츠전공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Glasgow
국가	영국 스코틀랜드
보고서 제출일	2026년 7월 1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교환학생 파견 희망 이유 및 SAF 선택 이유

15살 때 교육청 지원을 받아 한달 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너무나 즐거웠던 수업 분위기와 홈스테이, 늘어가는 영어 실력을 실시간으로 느끼며 대학생이 되면 교환학생 혹은 해외 유학을 꼭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SAF 선택이유는 본교 정규 교환학생은 학교 선택지가 비교적 좁았고, 장학 교환학생은 상대국 학비 별도로 대학 원서 지원 외에 대부분의 것들을(특히 숙소와 해외보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SAF 방문학생은 상대국 학비는 장학과 마찬가지로 별도로나 상대국 국제 학생 학비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숙소와 보험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교환학생 컨설턴트 및 준비 과정 중 어려운 점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점, 학교 지원서 대행, 24시간 왓츠앱 응대 서비스 지원, 현지 도착 시 공항-기숙사 픽업 서비스 제공 등 스스로 해결하기 까다롭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SAF 선택에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후기(학업)

1학기는 현지 적응과 언어에 중점을 맞추어 시간표를 구성하여 유학생을 위한 논리적인 영어 작문 수업, 스코틀랜드 역사 및 문화 수업, 마지막으로 공부해보고 싶었던 젠더사 관련 수업들을 수강하였습니다.

2학기는 제가 기존에 수학하고자 했던 목적에 맞추어 시간표를 구성했습니다. 교양으로 미술사 개론, 가부장제와 젠더사, 19세기말-20세기 초의 미국의 패권주의와 제국주의를 다루는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모든 수업들에서 질문을 굉장히 환영하고 어떤 질문이든 어리석다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세미나라는 수업 과정이 큰 역할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1,2학년 이론 수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업들은 매주, 혹은 격주로 세미나 시간을 보냅니다. 교수님, 학생들과 미리 읽어온 논문 혹은 책, 사료 등을 바탕으로 토론하고 주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점이 언어적 한계로 인해 가장 힘든 시간이었으면서도 가장 인상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어색한 상황과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서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학업 외 활동(동아리 및 여행)

대부분 학교에서는 Fresher's week라고 해서 학생회, 동아리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주최됩니다. 위 기간 및 동아리 정기 모임에서 정말 좋은 인연들과 많이 달을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유럽대륙과 가깝기 때문에 항공료가 저렴하여 여행 부담이 적고, 유럽은 국가들이 다들 육로로 가깝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를 가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습니다.

유학 중 힘들었던 점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영국의 의료시스템이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 근처 병원에 자신의 모든 의료 목적에 해당하는 일을 봐주는 GP를 등록해야 합니다. GP를 통해서만 진료, 약 처방, 백신 접종 등이 이루어집니다. 혹여 주말처럼 GP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구급차를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안 좋다고 판단될 경우엔 NHS로 전화하여 증상을 말하고 이를 적은 간호사가 의사와 논의하여 병원 예약을 잡아줄지, 아니면 약처방으로 끝낼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화 상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건 최소 30분에서 저는 최대 2시간까지 걸릴 수 있으며 병원 예약 또한 그들이 정해주는 병원 및 시간대로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스코틀랜드의 경우 약센트가 심하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말을 알아듣기 힘든 점 또한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NHS와 통화할 경우에 한하여 통역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대기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후 예약된 병원에서 오는 연락 등은 통역 서비스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경우 처방전 약은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영국에서 힘든 점은 병원 진료 보는 것 외에는 크게 없었던 것 같고, 자잘하게 불편했던 부분들의 경우(라디에이터 난방, 찬물/뜨거운 물 수도꼭지가 나뉘어 있는 점 등)엔 금방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유학이 삶에 미친 영향

어떤 일이든 일어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나이대별로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남들과 비교당해 뒤처질까 봐 조금해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해외에서 장기간 혼자 살아가면 독립심과 생활력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게 더 중요했던 점은 철저히 익숙한 환경과 분리된 사회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속도를 가진 사람인지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최소한의 제2외국어 회화 실력 덕분에 취업 시장을 한국에만 국한하지 않게 된 것도 제게 일어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송성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3 학번 게임전공
파견시기	2025 학년도 2 학기부터 익년도 1 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국가	영국
보고서 제출일	2026 년 6 월 5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해외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SAF 를 통해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UAL)의 Computer Science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주어진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En-suite 형태의 숙소로, 개인 방과 개인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플랫에는 총 8 개의 방이 있고, 플랫메이트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주방과 휴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건물 내에는 유료 세탁 시설과 공용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용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주최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정기적으로 열려,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대학과 달리 직접 수강신청을 하는 방식이 아닌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듣는 구조였고, 학기마다 지정된 4 학점의 전공 과목 3 개를 수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UAL 의 수업은 이론 학습보다는 프로젝트와 협업 중심의 교육 방식이 특징적이었기에, 협업 능력이 크게 향상하였습니다.

수업 외에도 교내의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학과에서 진행한 필드트립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교내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학과 규모가 약 20 명 정도로 크지 않았기에 서로 교류가 활발했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런던이라는 대도시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관광지과 문화시설이 매우 많아 도시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관광지 방문 및 미술관, 전시회, 공연 관람 등을 통해 영국의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생활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사회 전반이 한국보다 비교적 여유롭게 운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정 처리 속도나 대중교통 운영 방식, 공공 서비스 등 여러 부분에서 한국과는 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효율성과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교육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과 주로 교류해 왔지만, 영국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기준이 훨씬 넓어졌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남은 학부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환학생 과정을 통해 해외에서도 충분히 생활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전보다 더욱 넓은 시야로 진로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유성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1학번 / 의류학전공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Manchester
국가	영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7월 16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약 1년 동안 맨체스터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면서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영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출국을 준비할 때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후기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막상 와보니 실제 생활은 후기와 다른 부분도 있었고, 직접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점들도 많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생활하며 느꼈던 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출국 준비

출국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무엇을 한국에서 가져가야 하는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은 영국에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짐을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귀국할 때 기념품과 새로 구입한 물건들 때문에 짐이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혹시 몰라 다양한 종류의 상비약을 많이 가져갔지만, 다행히 많이 사용할 일은 많이 없었고 귀국할 때는 캐리어 공간이 부족해 여러 약을 버리고 왔습니다. 물론 감기약이나 소화제 처럼 자주 사용하는 약은 챙기는 것이 좋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화장품은 넉넉하게 가져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스킨, 로션 같은 기초화장품은 영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한국보다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평소 사용하는 제품이 있다면 미리 충분히 준비해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구류와 노트 등 공산품 가격들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가져오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여행용 공병입니다. 학기 중이나 방학 때 저가항공을 이용해 유럽 여행을 자주 가게 되는데,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 때문에 샴푸나 바디워시를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비해 오면 여행할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콘센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변환 어댑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를 지원하는 멀티 어댑터도 편리하지만 부피가 생각보다 커서 영국-한국 전용 돼지코를 하나 들고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 카드, 계좌, 보험 등

영국에서는 현금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슈퍼마켓, 카페, 버스는 물론이고 길거리 마켓에서도 대부분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현금을 환전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비상용으로 소액의 파운드만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은 트래블로그 카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결제는 이 카드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다만 국내 카드이다 보니 간혹 한국에서 은행 점검을 하면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계좌도 하나 정도 만들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Monzo를 사용했는데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많지 않지만 중고거래를 하거나 외국 친구에게 돈을 송금 할 때, 그리고 기차가 지연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등 만들어 두시면 필요한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ISIC** 국제학생증도 미리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학생 할인을 받을 기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관광지뿐만 아니라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도 드물게 학생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꽤 유용합니다.

보험의 경우 영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으면 **NHS**(영국 공공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 다쳤을 때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두 세번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에서 다른 유럽 국가로 여행할 경우인데, 이때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영국 현지에서 나오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꽤나 번거로우니 출국 전에 여행자 보험을 한국에서 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학교 소개

맨체스터대학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영국 대학교가 그렇겠지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여러 문화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업 방식은 한국과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먼저 수강신청부터 말씀드리자면,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교과목과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여 직접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교환학생은 한 학기에 **50~60 credits**를 수강할 수 있으며, 보통 한 과목당 **10 credit** 또는 **20 credit** 입니다. 가장 불편했던 점은 수강신청을 할 때는 교과목의 정확한 시간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수강신청이 모두 끝난 후에야 비로소 수업 요일과 시간, 일주일 중 언제 학교에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표를 미리 계획하기 어려워 꽤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은 크게 **Lecture, Seminar, Tutorial**로 구성됩니다. **Lecture**는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이고, **Seminar**와 **Tutorial**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거나 **Tutor**(조교)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규모 수업입니다. 만약 **Tutorial**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Tutor**에게 메일을 보내 다른 분반 시간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한국과 다른 점은 대부분 강의에서 출석체크를 안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첫 수업에는 학생들이 정말 많지만 학기가 지날수록 강의실이 점점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video.manchester.ac.uk**에 강의가 끝난 후에는 녹화본이 올라옵니다. 수업 내용을 다시 보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교내 활동

교환학생 생활을 마무리 하고 돌아왔을 때, 아마 가장 중요한 시기는 학기 초 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영국에 도착하면 시차 적응과 새로운 환경에 정신 없지만,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초 약 2주 동안은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돌이켜보면 초반 행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과제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외 학기 초반에 **Society Fair**가 열립니다, 다양한 동아리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활동을 홍보하는 행사인데, 독특하고 다양한 동아리들이 많으니 관심있는 동아리가 있다면 가입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결국 동아리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교환학생 생활에서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였습니다. 현지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동아리 활동은 꼭 한 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Student Union**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 대부분 행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관심 있는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맨체스터에서의 생활

맨체스터는 런던보다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면서도 영국에서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어디로든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런던까지는 기차로 약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었고, 리버풀이나 요크 같은 북부 근교 도시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맨체스터 공항 까지 시내나 기숙사 앞에서 버스를 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점입니다.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면, 다른 북부 도시인 **Sheffield**나 **Leeds**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해외여행을 갈 때 기차를 여러 번 갈아타며 맨체스터 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번거로워 보였습니다. 반면 맨체스터에서는 공항까지 직행 버스가 있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교환학생으로 생활하기에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환학생 기간 동안 학기 초에 중고로 자전거를 약 45파운드에 구입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한 학기만 생활한다면 고민해 볼 수도 있지만, 두 학기 머무를 예정이라면 자전거를 하나 구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요금이 비싼 편이고, **City centre**가 아닌 기숙사에 배정 될 경우 학교까지 도보로 20~30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맨체스터는 도로가 대부분 평평하고 자전거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원래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서 쉬는 날에는 **Salford, Didsbury** 등 주변에 다양한 동네를 둘러보곤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현지인처럼 일상을 보내는 느낌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 여행

저는 학기 중에는 주말이나 공강인 날을 활용해 영국 국내여행을 다녔고, 방학 동안에는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영국 국내여행을 할 때는 대부분 기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Railcard**는 필수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Railcard**는 처음 연회비를 내고 구입하면 매번 기차표를 30%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체감상 한 3번 이용하면 금방 본전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할인 폭이 큰 편입니다. 또한 **Railcard**를 런던 대중교통 카드인 **Oyster** 카드에 등록하여 런던 지하철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에서는 이용을 못하지만 런던 여행 시에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차표는 가능한 한 빨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소 2주 전에는 예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는 기차가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도착 시간에서 15분 이상 지연될 시에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런 제도도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기타

영국에는 학생 할인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Unidays**와 **Student Beans**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고 학생인증을 하시면 패션 브랜드나 식당, 숙소, 등 다양한 곳에서 할인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에어비앤비 5% 할인 코드가 있어 숙소를 에어비앤비 이용 할 때 마다 조금이나마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대부분의 미술관과 박물관 무료입니다. 여러 도시에서 수준 높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던 점은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유료이더라도 학생 요금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 신분을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통신사는 **Lebara**를 사용했습니다. 매달 10파운드에 3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이용했는데, 무료 EU 로밍이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별도의 로밍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은 한국과 비교하면 확실히 아쉬운 편입니다. 속도도 느리고 건물 안에서는 아예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기차를 타고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인터넷이 끊기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출국하기 전에는 치안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워낙 유럽의 치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다 보니 조금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해 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늦은 시간에 사람이 없는 골목이나 공원을 가지 않는 등 (영국의 공원은 한국과 달리 가로등이 거의 없는 곳이 많아 해가 지면 매우 어두워집니다.)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크게 불안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항상 경각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안전에 신경 쓰며 생활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규빈
학번(연도만) 및 전공	24학번 / 스페이스디자인
파견시기	2025 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United State
보고서 제출일	2026 년 6 월 11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https://goo.gl/bLPVRK>

안녕하세요. 저는 25년도 2학년 2학기부터 26년도 3학년 1학기까지 UCM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스페이스 디자인 전공 학생입니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교환학생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학기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학기보다 두 학기가 훨씬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오기 전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기세’라는 말 아시나요? 저는 조금 부족한 영어 실력이더라도 기세로 계속해서 친구들이랑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르는 표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찾아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대화를 표현을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찾아보면서 대화를 하는 방향이 확실하게 영어 실력이 느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는 우리와 같은 국제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 또한 우리와 같은 상황이니 국제학생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씩 해쳐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친구 관계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부분입니다. 미국 가자마자 친구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우리 각자의 학과, 또는 학교 내 체육시설, 기숙사, 식당 등에서 만날 수 있으니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주로 운동을 매일 했었고, 같이 배드민턴이나 배구를 하며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또한 룸메이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 친구들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길이 열려 있으니 친구 걱정은 너무 깊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셨을 때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맞게 자신의 생활방식을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UCM이라는 학교에 관한 설명입니다. UCM은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가서서 국제학생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볍게 적응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도 그 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수업을 짧게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학기에는 ‘Ellis Hall’에서 생활했는데, 학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숙사 이었지만 나름대로 그 공간을 헤쳐나가는 시기도 재미있었고, 추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하는 곳인 Dining hall이 지하에 있어, 편리하고 쉽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로비도 넓어서 친구들과 과제하기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는 ‘The Crossing Apartment’에서 생활했는데, 아파트라 제가 요리도 하고, 거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거나 같이 요리를 하고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체육시설인 ‘Recreation Center’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는데, 헬스와 다양한 운동 종목들이 잘 되어 있어서 체력을 기르는 데 좋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운동 종목을 접하기에도 좋았고,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친절하기 때문에 다 같이 어울려 지내기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CM에서의 전공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Interior Design’ 전공을 선택했으며, 저는 ‘Interior Design Studio 1’수업과 ‘Interior Design presentation’수업을 들었습니다. 스튜디오 수업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기초 개념들을 배우면서 디자인

을 어떻게 만들어 내야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튜디오 수업 듣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Presentation** 수업 또한 기초부터 자신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천천히 디자인을 배워 나가는 수업으로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2학기에는 ‘**Environment System**’, ‘**Drafting 1**’, ‘**Furniture Design**’을 수강했습니다. ‘**Environment System**’ 수업에서는 자연적 요소(공기, 바람, 에너지)등을 기반으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고, 환경적으로 내부를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인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 수업 이후에 미국 내에서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공간을 갔을 때, 계속해서 배운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다니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Drafting**’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Revit**’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단계별로 가르쳐 주셔서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재미를 느끼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완성시키는 내용이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히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수업은 쉽게 익히고 응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Furniture Design**’에서는 가구와 인체에서의 필요한 치수, 가구의 형태 등을 배우게 되고, 팀 프로젝트로 의자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까지 수업이기에 새로운 가구 수업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소통하는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그 또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귀국해서도 아직 국제친구들과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은 지금까지의 대학교 생활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 될 것 같고, 후회 없이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수업 내용도 있지만, 국제학생들과 친구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오랜 기간 지내다 보니 더욱 당당해진 모습도 볼 수 있고, 더욱 자유롭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운 모습도 나 자신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소도시에서 생활을 했지만, 도시와 반대로 여유롭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고, 친구들과 더욱 돈독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가고 싶으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꼭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은비
학번(연도만) 및 전공	스포츠건강관리전공 23학번
파견시기	25.2학기 ~ 26.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정규 교환학생
자매교명	University of Wisconsin - Stout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년 7월 12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저는 2025학년도 2학기부터 26학년도 1학기까지 university of Wisconsin - stout 대학교에 정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UWS는 wisconsin주에 있는 menomonie라는 작은 동네에 위치해있습니다. Menomonie는 백인이 주로 거주하는 매우 한적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지만, 그만큼 치안이 좋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는 동네입니다. UWS에서는 주로 제 전공과 관련된 health, wellness and fitness 또는 physical education 전공의 수업을 많이 들었고, 교양 수업으로는 music in our world, piano 2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UWS의 교환 담당 관계자이신 Danielle 씨는 매우 일처리가 빠르시고 메일 답장 속도도 빠르셔서 매우 순탄하게 교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UWS에 합격한 사람들은 정규 학기 시작 일주일 전쯤 OT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OT에서는 다양한 학교 관련 정보, 주의해야 할 점, 보험 등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항공편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에서 MSP(minneapolis)공항으로 대한항공-델타 공동 운항 직항편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항을 타시는 걸 강력 추천 드립니다.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우버나 그룹(공항 셔틀)등을 이용해 가야 하지만, 저희는 운이 좋게 다수의 중국 학생들과 함께 도착해 학교 측에서 버스를 대절해 태우려 와 주셨습니다. 저희도 학교 측에 교통편을 제공해주실 순 없는지 여쭙보는 과정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학교 측에 한 번 여쭙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MSP 공항에서 UWS로 가는 우버가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 그룹을 조금 더 추천 드립니다.(그룹은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WS는 정말 한적하고 안전한 시골에 위치해 있으므로 우버 기사님들이 UWS에서 MSP로 다시 나오는 고객이 없다며 종종 거절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함) MSP 공항에서 UWS는 차로 한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Red cedar 기숙사를 이용했습니다. Red cedar 기숙사는 하나의 큰 방 안에 개인실이 4개가 있고, 룸메들과 화장실, 샤워실, 주방을 공유하는 리조트 형태의 기숙사입니다. 개인방이 있는 만큼 가장 비싼 기숙사로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 공간을 희망했기에 Red cedar 기숙사를 이용했습니다. Red cedar는 학교 메인 캠퍼스와 도보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north campus에 위치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학교 안을 돌아다니는 캠퍼스 버스를 타면 시계탑 앞과 도서관

앞에 내려줘서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Red cedar 앞쪽에도 작지만 24시간 헬스장과 학생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파견된 다른 학우는 메인 캠퍼스 안에 위치한 north hall 기숙사를 이용했는데, 이 기숙사에는 international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어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메인 캠퍼스에 안에 위치해 있기에 본인이 아침잠이 많은 편이시라면 메인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를 이용하시는 편을 추천 드립니다.(저는 Red cedar에서 메인 체육관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메인 캠퍼스에 위치한 만큼 더 큰 규모의 카페테리아와 체육관과의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Red cedar 기숙사는 주로 미국인 3,4학년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키친이나 세탁실 등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north hall 기숙사는 중국학생들이 주방 등을 매우 더럽게 쓴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 염두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rth hall 기숙사는 기본 2인1실로, 본인이 추가 비용을 더 낸다면 혼자서도 방을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North hall 기숙사는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에 방이 빨리 사라진다고 알고 있으므로 민첩하게 선택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Red cedar 기숙사 방 사진은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Menomonie는 9월까지의 습도가 하나도 없고 매우 화창한 가을 날씨이지만 10월 중반부터는 맨투 맨이나 후드티를 입고 다녀야 할 정도로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11월부터는 패딩을 입고 다녀야 할 정도로 추워지며 매우 많은 양의 눈도 내리는 지역이므로 부츠를 구비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실제로 12월부터 2월말까지는 영하 20~30도를 웃도는 매우 추운 날씨이며, 5월까지도 긴팔, 긴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추운만큼 습도가 낮고 벌레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눈을 여한 없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가을-겨울 옷을 많이 챙겨오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의 편의시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MSC 1층에 위치한 학생 매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피자, 샌드위치와 간식들을 블루카드(학생증 카드)로 사먹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파는 pb&j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으니 꼭 먹어보세요! 또 다른 편의점으론 메인 캠퍼스 체육관 쪽에 위치한 kiwk trip입니다. 이 곳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치킨, 샌드위치, 햄버거 등을 24시간 사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주류도 구매할 수 있는데, 주류는 9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니 시간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wick trip옆에 파는 liquid shop도 마찬가지로 9시까지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Menomonie의 가장 맛집은 hang's cushion과 화덕 피자집인데, 두 곳은 호불호 갈리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애용하는 장소이니 꼭 가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수업은 학과와 교수님마다 너무 상이할 것 같아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전공 관련 교수님들은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전공은 다양한 종류의 운동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있었고, 제가 저희 전공의 유일한 아시안 학생이었기에 교수님들이 특히나 더욱 신경 써주셨습니다. 미국 수업은 주로 팀플과 발표로 많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클래스 메이트와도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한국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미국인 친구들이 먼저 다가가줘서 그 친구들의 차를 얻어 타고 시내에 나가 놀거나 본가에 초대받아 부모님과도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외향적으로 다가가 스몰 토크를 나눈다면 대부분 좋아해줄 것이니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세요!

추가적으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미국 계좌를 만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학교 주변에 위치한 호수가를 따라가다 보면 **BMO** 은행이 있는데, 최소 금액인 **50달러**와 여권만 들고가면 알아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 겁 먹지 말고 계좌를 만드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미국 계좌가 있으면 등록금을 납부할 때 한국 은행에서 미국 계좌로 돈을 송금해 미국 계좌에서 등록금이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낼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가 거의 **2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니 계좌를 만드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또한 학생 카드에 충전해 두었던 금액이 남은 경우 미국 계좌로만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만드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숙사에는 아무런 생활용품이 없기 때문에 월마트에 가서 침구류와 기본적인 식기류까지도 모두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기숙사 프론트 데스크에서 냄비나 식기류를 빌릴 수 있었으나 매번 요리를 할 때마다 빌리는 게 불편하고, 젓가락이 없기 때문에 앞접시로 사용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용기와 기본적인 수저세트는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의 월마트는 시내 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내 버스는 한시간에 한번 와서 시간을 잘 맞춰서 타야 하고 장보는 것도 한시간 내에 끝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두시간 뒤에 오는 버스를 타도 괜찮다면 천천히 장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월마트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한국 라면과 김치, 김, 햇반도 파니 크게 한식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항 근처에 작지만 한인 마트도 있으니 미국 현지 친구와 친해진다면 드라이브를 물어보고 필요한 식재료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월마트 주변엔 작지만 영화관도 하나 있는데, 특정 요일엔 학생 할인으로 **6달러**에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UWS**의 학식은 **3달러** 정도로 매우 싼 편입니다. 하나의 메인 메뉴를 고른 후 시리얼, 과일, 샐러드 등의 메뉴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주로 메인 메뉴는 햄버거, 파스타, 샌드위치 랩 등이 있지만 간혹 오렌지 치킨, 팟타이, 볶음밥 등 아시안 학생들 입맛에도 잘 맞는 메인 메뉴도 나옵니다. 학식은 테이크 아웃으로도 먹을 수 있고 추가 금액을 내면 메인 메뉴도 두 개를 먹을 수 있어서 저희는 학식을 많이 애용했습니다. 혹시라도 **UWS**에 합격하셨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200355angela@naver.com으로 메일 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Red cedar 개인 방



(2) Red cedar 공용 주방



(3) 주로 수업을 들었던 체육관 강의실



(4) 카페테리아에서 먹은 학식 사진



(5) stout의 명물 시계탑



(6) 겨울엔 눈이 이만큼 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임예슬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그린화학공학과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United stated of America
보고서 제출일	2026년 6월 05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저는 25년도 2학기부터 26년도 1학기까지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약 10개월동안 미국에서 지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에서는 하지못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수업은 OT주간에 영어 테스트를 보고 전공 수업만 들어도 되는지 영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전공수업은 1000번대가 쉬운 수업이고 4000번대가 어려운 수업입니다. 여기서 듣는 수업의 학점들은 한국에서 패논패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듣지 못했던 다양한 전공과 교양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시험은 과목마다 다른데 중간, 기말만 보는 과목도 있고 한학기동안 여러 번의 시험을 보는 과목도 있어 이걸 듣고싶은 수업의 강의계획서를 직접 찾아봐야합니다.

제가 있던 Missouri는 미국의 중부로 시골마을입니다. 시골마을이라 주변에 놀거리가 별로 없지만 여행다니기에는 좋은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10개월동안 동서부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동부를 가던 서부를 가던 보통 비행기산이 3시간입니다. 학기가 끝나고 동부여행 후 서부로 넘어갔더니 6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음식은 보통 다이닝에서 먹거나 만들어먹습니다. 저는 요리가 가능한 크로싱이라는 아파트에 살아서 만들어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가을학기에는 밀플랜을 50끼, 봄학기에는 25끼 했는데 가을학기에는 너무 많이 남아서 마지막 한달을 억지로 다이닝을 가 사용했고 봄학기는 적당히 넉넉했어요. 만약 아파트에 거주하실 계획인데 만들어먹는거 좋아하신다면 처음에 25끼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추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닝은 Todd랑 Ellis 기숙사에 있는데 두 다이닝 모두 매일 피자과 버거는 기본으로 나와요. 메인메뉴도 매일 비슷한 고기가 나와서 저는 많이 만들어먹었습니다. 요리를 하기위한 재료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있는 셔틀을 타고 월마트에 가서 구매했습니다. 학기중에는 매주 셔틀이 있고 가끔 눈이 많이 올 예정이다 하면 화요일이 아니라도 주변 교회에서 월마트를 데려가주시기에 편하게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The Crossing에서 1년을 지냈습니다. 다른 분들이 작성하신 후기에서 더크로싱이 아파트 형식으로 가장 좋은 기숙사라해서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Ellis에 배정되었어요. 그러다 크로싱 자리가 생겼다고 연락이 와서 크로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아파트라 기숙사보다 시설도 좋고 살기 좋았어요. 또한 많은 국제학생 친구들이 크로싱에 살다보니까 친구들과 놀기에도 좋았습니다. 제 개인 방이 있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크로싱에 살다가 Foster/Knocks 1인실로 이사를 갔는데 주방이 있는 1인실이라면 굳이 크로싱이 아니어도 좋아요.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조은희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2 정보보안공학과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부터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
자매교명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년 07월 17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안녕하세요, SFSU로 파견가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해당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저의 경우, SFSU로 먼저 파견나간 선배님들이 계시지 않았지만 이 글로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1) 전반적인 학교 생활

헬스장 : 헬스장은 크게 한 건물을 쓰며 시설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헬스기구 외에도 수영장과 자쿠지, 사우나, 클라이밍장 등이 있습니다. 가게 되신다면 자쿠지는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숙사와의 거리가 도보 3분으로 매우 가까워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도서관 : 도서관도 굉장히 큰 건물인데, 적당히 시끄러운 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1-2층을,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3,4층에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건물에 노트북을 대여할 수 있고, 시험을 볼 때 필요할 수도 있는 계산기 또한 대여할 수 있습니다.

Burk Hall 401호에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해당 공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코스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2) On-campus(기숙사) VS Off-campus

저는 가을학기에는 기숙사를, 봄학기에는 오프캠퍼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제가 생활한 기숙사명은 **Village**로, 해당 기숙사의 구성원은 교환학생 및 어학원생들, **transfer**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여러 종류의 기숙사들이 캠퍼스 내에 존재하지만 교환학생은 해당 기숙사에서만 거주할 수만 있습니다. 해당 정책 때문에 현지 친구들을 사귀기 좀 어렵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게 놀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수업시간에 현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서 이 점은 그렇게 큰 단점이 아니었지만, 만약 들을 수 있는 수업이 한정적이거나 어학원을 고민중이라면 어려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village** 거주자는 밀플랜도 필수로 구매해야 합니다. 다이닝 홀은 두 군데 존재하는데, **Yerba**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과 아침과 점심 사이의 **light meal**과 저녁 이후의 야식도 운영하고, **Mornaca**는 평일 점심과 저녁만 운영합니다. 주로 **Mornaca**의 메뉴가 더 다양하고 규모도 커서 평일 점심과 저녁은 **Mornaca**를, 나머지 날은 **Yerba**를 이용했습니다. 밀플랜이 필수 구매이긴 하지만 학생관리팀에 잘 설명하면 밀플랜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부엌이 있지만 조리도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리를 해먹을 경우 생

각보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 내에는 라운지와 세탁실이 존재하며, 세탁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 한번 사용할 때 각 \$2.5를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village**는 **a, b, c**동으로 나뉘는데 **c**동은 독립적인 건물이고, **a, b**동은 내부적으로 이어져있는 땅콩건물 같은 형태입니다. 기숙사 신청을 하면 방배정을 미리 해주는데, 만약 이때 **c**동으로 배정받으신다면 방을 **a, b**동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입실 이후 방을 바꾸게 되면 \$100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한 학기만 계시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숙사가 비용이 더 비싸지만 대부분의 학생들과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더 알찬 교환학생을 할 수 있고, **SFSU**의 캠퍼스는 안전한 편이라 보안측면에서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운 좋게 학교 근처의 약 5분 거리의 오프캠퍼스 방을 구할 수 있었지만, 다른 오프캠퍼스 거주자 친구들은 캠퍼스와 거리가 먼 곳에서 거주했어서 학교를 통학할 때나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오프캠퍼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친구들 중 많은 친구들이 친구 사귀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프캠퍼스의 생활이 온캠퍼스의 생활보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의 경우 가을학기에는 기숙사를 살았기 때문에 이미 친구를 사귀었고, 온캠퍼스의 경우 **single**룸과 **double**룸이 존재하지만 저는 돈을 절약하고 룸메이트와 친해지고자 **double**룸에서 생활을 했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온캠퍼스에 거주할 경우, 친구들과 매우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15개의 밀플랜을 사용했어야 했는데, 생활하는 동안 뭘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했지만 동시에 어디를 놀러갈 때 밀플랜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레스토랑을 가기보다는 다이닝 홀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 당시에는 샌프란에서 외식을 비교적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금액 자체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매달 약 \$600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기숙사는 렌트비와 밀플랜을 합친 금액이었고, 오프캠퍼스는 렌트비와 식비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할 때 나온 금액입니다. (기숙사비: 약 \$1,600 + 밀플랜: 약 \$500 VS 셰어하우스: \$1,200, 식비: \$300)

미국은 렌트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한국처럼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형태가 아닌 주로 셰어하우스처럼 집에서 방을 하나 렌트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 대신 **deposit**을 내는데, 해당 금액은 월세와 동일한 가격을 내고, 방을 뺄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근처는 주로 월세 \$800 ~ 1,200 정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자취방을 **Roomies**와 **Spareroom**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방을 구하실 때는 인터넷과 세탁기, 침대가 포함된 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점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더 잘 맞을 것 같은 곳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생활비 및 꿀팁

생활비의 경우, 학교의 **food pantry**를 이용해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Foodpantry**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식재료 나눔 연합으로, 기본적인 채소, 달걀, 통조림 뿐만 아니라 냉동식품이나 빵, 과자 등등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해당 인스타그램 (@as_foodpantry_sfsu)을 팔로우하시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저는 오프캠퍼스 생활 당시, **foodpantry**를 이용해 달마다 약 \$200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코스트코 카드가 있으시다면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트레이더즈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한 학기에 2, 3번씩

가서 장을 보고 소분한 뒤 얼려서 사용했습니다. Foodpantry에서 채소를 받고, 코스트코에서는 단백질과 과일을 구매해서 생활했더니 기숙사 살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경비를 제외하고 렌트비를 포함한 모든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기숙사 거주할 때는 달마다 약 \$3,000 이었고 오프캠퍼스에서 거주할 때는 약 \$2,000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도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지역으로 교환학생 가는 것보다 약 1000-2000만원 정도 더 지출한 것 같습니다.

학교 비용을 납부할 때, 학교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이때 미국 계좌이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결제 수단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미국 계좌 개설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학교에 좀 더 빠르고 쉽게 적응하고 싶다면 Shawn이라는 한국인 유학생 친구를 사귀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내용입니다.)

4) 지역 인프라

학교 바로 옆에는 걸어서 10분거리에는 sf 유일의 쇼핑센터인 Stonestown과 Traderjoe's, Target, Whole Food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한 물품이나 쇼핑, 장보기를 할 때 걸어서 가기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흔히들 쓰는 미국 대형 은행 지점들(Bank of America, Chase 등)도 있어서 미국 계좌 개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라탕을 좋아하신다면 Stonestown의 Tang Bar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sf에서 먹어본 마라탕 중에 제일 맛있었고, 한국 마라탕보다 재료 가짓수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맛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맛을 먹고 싶다면 just kick맛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SF는 굉장히 교통이 발달한 동네입니다. 학교에서는 무제한 교통 카드를 발급해주는데, 해당 교통권을 통해 bart, muni, Caltrain, bus, ferry 등 California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대중교통을 탈 수 있습니다. 해당 교통권은 모두 tuition fee에 포함이 되어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대중교통을 이용해 caltrain으로 San Jose로, ferry로는 Sausalito로 쉽게 여행할 수 있으니, 오시게 된다면 한번씩 방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 외에도 다운타운도 muni로 환승없이 30분 ~ 1시간이면 바로 갈 수 있어 차 없는 교환학생으로서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동네입니다.

운동 경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쉽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의 chase center에서 warriors 농구 경기를, oracle park에서는 야구 경기를, 아래 동네인 san jose에서는 아이스하키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 티켓은 ticketmaster와 같은 티켓 판매처에서 경기 직전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다운타운에서 First Thursday 축제를 엽니다. 다운타운 한 street를 모두 쓰는 축제이기 때문에 규모가 꽤 크고, 공연과 푸드트럭 알코올 구매도 가능하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달 크고 작은 행사가 다운타운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채널을 팔로우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쇼핑을 좋아하신다면 San Francisco Premium Outlet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가깝고 규모가 큰 아울렛이고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옷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친구들 여럿과 우버를 부르거나 차 있는 친구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곳에서 쇼핑을 하고 있으시다면 Ross를 추천드립니다. 저렴하지만 퀄리티도 좋고 예쁜 옷들도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또 second hand store로 유명한 height st. 도 있으니 한번쯤 가보는 걸 추천하지만 퀄리티 대비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있는 편 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근교에는 차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가 존재합니다. Santa Cruz는 굉장히 따뜻한 날씨와 바닷가가 있으며, 차로 한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 쉽게 접근하기 좋습니다.

또한 비슷한 분위기인 **Carmel by the sea**도 있고, 호수가 예쁜 **Lake Tahoe**도 있습니다. **Lake Tahoe**의 경우, 여름에 가면 예쁜 강에서 놀 수 있고, 겨울에 가면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Napa valley**나 **Sonoma county**에서 와이너리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와이너리를 따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california**는 유명 와인 산지 중 하나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퀄리티 좋은 와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의 와인바나 트레이더조에서 파는 와인을 마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정말 예뻐서 **twin peaks**와 같은 곳에서 야경 보기도 좋고, 술을 좋아하신다면 루프탑 바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Cityscape sky bar**를 추천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거주자이면 무료로 갈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De young museum**이 있습니다. 다른 장소도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고 무료로 즐기실 수 있는 것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5) 그 외

샌프란시스코는 IT 도시이기 때문에 아시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안 문화에 익숙해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지만 좀 더 아시안 문화가 강해 인종의 다양성이 비교적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쉽게 분위기에 녹아들 수 있었지만 색다른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다른 지역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날씨와 다릅니다. 날씨는 바람이 많이 부는 한국의 가을날씨와 비슷합니다. 일년 내 반팔을 입는 날보다는 긴팔이나 반팔에 잠바를 입기 적당한 날씨입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해 낮에는 반팔을 입다가도 저녁이 되면 가디건을 입어도 추운 날씨입니다.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두꺼운 롱패딩은 필요없지만 경량패딩, 가죽잠바, 트렌치코트와 같은 외투를 입기 좋은 날씨입니다. 8-10월 초까지는 선선한 여름이라면, 그 외의 달에는 일교차가 심해 감기가 걸리기 쉽습니다. 감기약은 부족하지 않게 많이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변이 있는 도시이지만 비치 피크닉이나 수영을 하기엔 적절한 날씨는 아닙니다. 해변이 있어 바람도 세고, 날씨도 우중충할 때도 있고, 구름도 많이 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우중충하지 않은 날에는 파랗고 깨끗한 하늘을, 저녁에는 많진 않지만 별도 볼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은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싶은지 마음먹기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영어를 많이 배우고 싶고 현지,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먼저 많이 다가가고 열심히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팀플이 있는 교양수업이나 야외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친구를 가장 쉽게 사귄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공수업에서도 팀플을 자주 하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친구를 쉽게 사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경험으로 잊을 수 없는 기억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만약 교환학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오기전에 열심히 계획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olden Gate Bridge>



<다이닝 홀>



<Napa valley winery>



<Sonoma 포도밭>



<할로윈>



<Warriors>



<크리스마스>



<Ocean beach>



<China town>



<Cityscape sky bar>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최승제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3/경영공학과
파견시기	2025 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상명대 SSAP 영미권 정규교환학생
자매교명	Kean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 년 7 월 5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안녕하세요 2025 2학기 ~ 2026 1학기 정규교환으로 Kean University에 다녀온 경영공학과 최승제입니다. 교환학생 때 정보가 너무 부족했고 다녀와보니 정말 좋은 경험이라 보고서로나마 최대한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작성해보겠습니다. Kean University 교환 프로그램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들어서 Kean University만의 정보보단 미국대학교의 보편적인 정보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점은 jaychoi1324@gmail.com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1. 선발 이후 준비

우선 비자와 백신 접종이 가장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선발학교가 정해지고 나서 백신을 맞았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했습니다. 따라서 교환학생 선발 후 본인이 가고자하는 학교 기숙사 필수 예방접종 안내를 찾아보고 공통적으로 맞아야하는 백신을 미리 맞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자에 관해서는 J-1 혹은 F-1비자로 보통 받는데 본인의 해외교에서는 어떤 비자로 필요로 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자 인터뷰시에는 미국에 머무를 것이 아닌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서류상 증명할 수 있다면 증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한국 대학원 영문 합격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또한, 최근 비자 인터뷰 후에 Green Letter로 임시거절한 후 서류 심사 후에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된 Green Letter 받으셔도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 기다려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해외교 가기전에 수강신청도 하게될텐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주말에 원활한 여행을 위해 월화나 화수목에 수업을 전부 몰아서 들었습니다.

2. 비용

정규교환학생의 장점 중 하나로 비싼 미국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본교 학비만 내고 기숙사비/생활비/비행기값/여행비/비상금 정도면 충분할 듯 싶습니다.

Kean University 경우 1호에 방 3개인 1인 기숙사였으며, 1학기 \$10,000 정도 가격이었습다.(해당 기숙사비는 학교 뷔페를 이용할 수 있는 Meal Plan 이용권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생활비나 여행비는 각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듯 싶습니다. 첫 달에 넉넉하게 생활해본 뒤 정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현지은행(Bank of America/Chase) 체크카드 발급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 기숙사

기숙사 시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부분 미국학교는 교내경찰이 상주 중입니다. 따라서 크게 위험하다고 느낀적은 없었습니다.

기숙사 시설로는 주방, 자판기, 게임방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캠퍼스에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스타벅스, 치폴레, CVS 등등 프랜차이즈와 여가시설이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아픈 경우에 Kean University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1년 가까이 있었다보니 학교 근처 프랜차이즈가 질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4. 학업/수업

우선 수업난이도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론적인 수업이 많았고, 시험 또한 한국대학교 시험에 비하면 암기량이 매우 적습니다. 반면에 프로그램, 코딩 등 실무적인 수업은 진도가 좀 빨랐던 경향이 있고, 팀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질의응답이 매우 자연스럽게 편한 분위기입니다. 궁금한거나 교수님 말을 못들었을 때 질문드리면 대부분 친절히 답해주십니다.

또, 상명대의 샘물 시스템처럼 미국엔 Canvas라는 어플과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시험이나 시간표 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5. 장점

미국 정규 교환학생의 장점은 동부, 서부 등 여행할 미국 내 여행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이애미,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평소 가고싶었던 여행지들을 국내선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환기간 끝나고 캐나다를 여행하고 귀국하는 타학교 교환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오케스트라, 축구, 야구, 농구 등 문화거리가 굉장히 다양한 국가입니다.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던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평소 응원하는 팀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추천

저는 미국가서 스스로 적응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는데, 축구, 농구, 피아노, 게임 등 취미가 굉장히 많은게 친구를 사귀는데 매우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많으시다면 미국에서 다양한 친구를 만들어서 여유롭고 재밌게 적응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또, 흥이 많은 성격도 해외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몰토크나 모르는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는걸 꺼리지 않으시다면 해외생활에 잘 적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식과 관련한 금융투자를 매우 좋아해서 워런 버핏 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를 가보는게 꿈이었고, 이번기회에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왔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이루고 싶은 본인만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그 어떤 사유보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대 때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보다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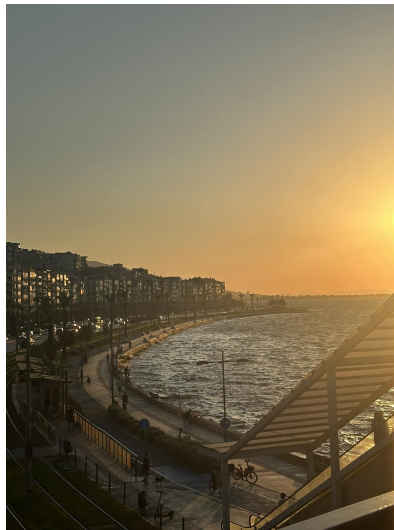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정말 좋은 다양한 현지인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아직도 연락을 하며 지내는데 교환 확정된 학생분들은 가셔서 다양한 친구들 만나고 사귀어보는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최예니
학번(연도만) 및 전공	23 역사콘텐츠전공
파견시기	2025 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Izmir University of Economics
국가	튀르키예
보고서 제출일	2026년 07 월 13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1. 이즈미르와 IUE

이즈미르는 튀르키예 제3의 도시이자 450만 규모의 대도시이며, 에게해에 위치한 항구도시입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보다 여유롭고 치안이 안정적입니다. 또한, 튀르키예에서 가장 개방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즈미르의 거주하며 자주 가게 될 3개의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초바(Balcova)는 파견 대학인 IUE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관광지보다는 현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치안이 안전하고 조용합니다. 학교 시설 외에도 대형 백화점, 마트, 버스 터미널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코낙(Konak)은 이즈미르의 중심가이자 주요 관광지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시계탑과 이즈미르에서 가장 큰 시장인 케메랄트 바자르, 엘리베이터 타워가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알산샹(Alsancak)은 이즈미르의 가장 변화한 곳으로, 다양한 맛집, 카페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ESN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 가장 자주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파견된 Izmir University of Economics는 이즈미르의 대표적인 사립 대학으로, 경영·경제 학문 분야가 규모가 크지만, 공학, 예술 등 다양한 학과가 개설된 종합 사립대입니다. Balcova 지역의 위치하여 있으며, 산 중턱의 위치하여 버스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2. 출국 전

<준비물>

30인치 캐리어, 등산배낭을 가지고 갔습니다. 상비약의 경우, 현지 약국이 잘되어 있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만 준비하면 됩니다. 전자기기 액세서리(케이블, 충전기 등)이 한국보다 비싸기 때문에 여분을 챙겨오면 좋습니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모자를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의 경우 한국과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현지 구매도 가능합니다. 라면, 고추장, 떡볶이 소스, 조미김 한식은 구하기 어려우니 한국에서 챙겨오거나 가족을 통해 택배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거주할 당시에는 온라인 주문을 통해 불닭볶음면, 신라면, 삼양라면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1봉지에 약 8000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겨울옷은 이즈미르 현지에서 한국으로 보냈고 7키로에 1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숙소>

기숙사 미지원으로 직접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출국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했으나, 현지에서 국제교류회(ESN)에 도움을 받아 거주지를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거주하던 집은 하우스메이트 1명에 거실, 주방,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던 집으로 공과금 제외 월 250유로였습니다. 2학기에는 같은 집에서 홀로 거주하여 월 500유로를 냈습니다. 튀르키예 리라가 불안정하여 외국인 대상 숙소는 유로로 받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모스크 인근의 거주할 경우, prayer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도착 후 행정

<이카멧/거주허가증>

튀르키예의 경우 학생 비자 대신에 무비자 입국 후 3개월 이내 현지에서 '이카멧(거주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카멧이 현지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이카멧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여권 사본, 학교 재학증명서, 현지 보험 가입 증명서, 증명사진,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증명사진은 한국에서 가져간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한 후 온라인 신청을 하고 Konak에 위치한 이민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에서 서류 검토, 지문 등록,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인터뷰를 통과한 뒤 집 주소로 이카멧이 배송됩니다. 이카멧 발급 전에는 해외 출국이 불가하니 최대한 빨리 준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유심>

튀르키예에서는 Turkcell, Vodafone을 주로 사용하며 저는 Turkcell을 사용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에서 반입한 핸드폰에 튀르키예 현지 유심 사용 시 정부에 핸드폰 IMEI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유심 활성화 이후 120일 간 유예기간 이후에 핸드폰 IMEI가 차단됩니다. 등록 비용이 54,258 TRY(약 170만원)이므로 등록하는 대신 다른 2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번째로 매년 1월 1일에 등록 기간이 리셋되므로 1학기만 가는 경우에는 리셋 기간을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로 esim을 사용할 경우 다른 IMEI로 인식되어 120일의 유예 기간이 새로 생깁니다. 처음에는 현지 유심을 사용하다가 120일이 만료되기전에 통신사 매장에 방문하여 이심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Turkcell에서 무료로 유심을 이심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25년 9월 중순에 현지 유심을 개통한 이후, 2026년 1월 1일에 한번 기간이 리셋되었고 5월달에 이심으로 전환하여 사용했습니다.

<은행>

이카멧(거주허가증) 발급 전이라도 여권, 재학 증명서, 집 계약서, 현지 전화번호를 가지고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저는 Ziraat bank를 이용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었으며 유럽 여행 시에도 해당 카드를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다만 발급 받을 시 무조건 visa/mastercard로 발급 받아야 하며 troy카드는 결제가 불가했습니다. 한국카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은 초기에 교통카드 충전을 제외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학교 생활(Izmir University of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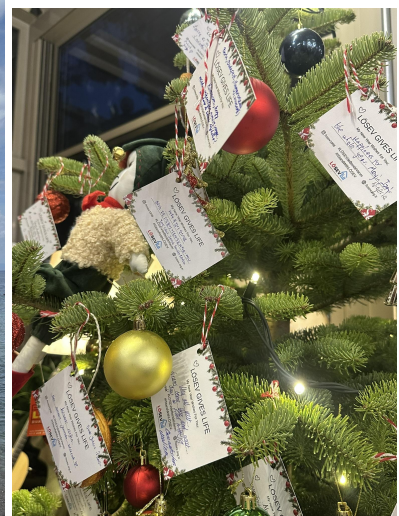
<수업>

수강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정원 초과 시 해당 학과 오피스를 방문하여 요청하면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수업을 원하는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명대에서 경영학부를 다전공하여 경영 및 사회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한 학기당 강의 4개를 수강하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들은 다양한 레포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과제로는 대표적으로 튀르키예 현지 HR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무적인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시험은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시행합니다. 시험은 PPT를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보기 수월했습니다 첫 학기에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튀르키예어 수업이 개설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수업에서 출석률이 70퍼센트 이하면 자동으로 F 처리 됩니다. 학기의 경우 1학기는 9월 말부터 1월 중, 2학기는 2월 중부터 6월초까지 입니다.



<ESN>

교환학생 대상 이벤트는 ESN이라는 국제교류회에서 진행합니다. Whatsapp그룹과 인스타그램에서 @esniue계정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N을 통해 카파도키아, 보드룸 등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참여 가능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활동은 체쉬메 바다 여행, 보드룸 리조트 여행, 에페소스 유적지 방문, 하이킹, 크리스마스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저는 학기 초반에 다양한 행사를 참석하고 이후 친해진 친구들과 교류하였습니다.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활발하게 이벤트를 진행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 ESN 멤버들은 모두 영어가 유창하므로 소통의 문제는 없습니다.



<교내 시설>

교내에는 다양한 미니 마켓, 자판기, 카페 3곳, 학생 식당이 있습니다. 학생 식당은 파스타, 샐러드 등을 판매하는 식당과 자유롭게 음식을 고르고 이후 반찬 수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에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한달전부터 학교 로비에 있는 마켓에서 불닭볶음면을 판매하였습니다. ‘EkoFit’이라는 운동 시설이 있으며 헬스장, 다양한 피트니스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교 근처에 Asya Kirtasiye라는 문구점이 있어 저렴한 비용에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대형 백화점 ‘İstinyePark İzmir’가 있습니다. Zara, Mango, Adidas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하여 있어 쇼핑이 편리합니다.

4. 현지 생활

<날씨>

지중해성 기후로 처음 도착한 9월에는 덥고 건조하지만 10월부터 날씨가 선선해집니다.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며, 비가 자주 옵니다. 패딩 1벌을 가져오거나 현지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8월에는 40도가 넘게 올라가는 날이 있지만 제가 현지에 거주하였던 9월-6월에는 대체적으로 날씨가 온화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교통비의 경우 매우 저렴한 편으로 대학생 요금은 17리라(약 500원)였습니다. 성인은 35리라로 하차하고 90분 이내에 환승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은 페리, 트램, 지하철, 전철, 버스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트램과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은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합니다. 일반 교통카드는 지하철역에 있는 역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일반 은행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재학 인증서를 가지고 Fahrettin Altay station, Konak Izmir Kart Merkezi에서 학생용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대체적인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저는 월세 및 공과금 제외 월 40-50만 원 정도 소요하였습니다. 제가 거주하였을 때 외식은 서울보다 조금 비쌌고 슈퍼마켓(A101, Carrefour)는 한국과 비슷하였습니다. A101, Migros는 할인마트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월세는 서울보다 조금 비싼 편입니다. 자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다수 교환학생들은 하우스메이트와 집을 셰어합니다. 위에 언급되었던 저는 투룸에서 공과금 제외 셰어 시 월 250유로, 자취 시 500유로를 내고 거주하였습니다.

<튀르키예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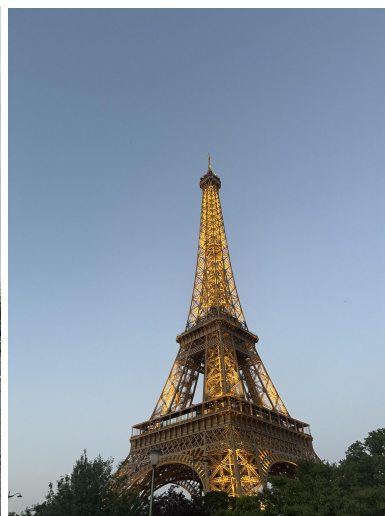
제가 이즈미르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튀르키예와 유럽을 여행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즈미르는 튀르키예 관광지들과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버스로 2시간 반 거리에 파묵칼레/데니즐리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날씨가 좋고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어 가을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카파도키아는 버스로는 14시간 정도 걸려,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겨울에는 비와 바람이 많아서 열기구가 뜨지 않는 날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탄불은 비행기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버스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경우, 이즈미르보다 물가가 비쌉니다. 외에도 인근에 Bodrum, 에페소스 유적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여행하기 전에 학생할인을 통해서 MüzeKart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MüzeKart는 관광지 입장패스 카드로 튀르키예 관광지에서 대부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사용하여 파묵칼레, 카파도키아 관광지들을 무료로 입장하였고 이스탄불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유럽 여행>

이카넷을 발급받은 직후 12월에 유럽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대도시는 이즈미르와 직항이 많아 여행하기 편리했습니다. 12월 말에는 독일 베를린, 드레스덴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였습니다. 독일에는 저렴한 아시안마켓이 많아 이곳에서 식재료를 구매해 이즈미르로 가져갔습니다. 1월-2월에는 이탈리아(로마-나폴리-폼페이-피렌체-베네치아), 스페인(바르셀로나-세비야), 포르투갈 리스본을 방문하였습니다. 겨울에는 관광객이 적어 대부분의 장소에 예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폼페이의 경우, 입장은 미리 예약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교통편은 나폴리에서 당일에 기차를 예매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3월에는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하였습니다. 대부분 관광지가 도보거리에 있어서 교통권 구매가 필요 없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하여 가죽자켓을 입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5월 말에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였습니다. 라마단 바이람이라는 긴 휴일이 있어 일주일 이상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기가 끝난 6월말부터 7월에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빈, 체코 프라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여행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유럽 여행시 교통권을 validate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종이티켓보다는 어플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길에 개, 고양이가 많으며 식당, 백화점, 학교 강의실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동물들이 공격적이지 않지만 알려지가 심하거나 대형견이나 고양이를 무서워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 어렵지만 한식당이 꽤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파는 것과 맛이 다르지만, **Karşıyaka**에서 불닭볶음면을 판매하는 **Hangang Ramyeon İzmir**는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핸드폰 앱으로는 **Trendyol**은 온라인 쇼핑 앱으로 쿠팡, 아마존과 비슷합니다. **Yemeksepeti**는 배달 어플입니다. 또, 교통카드는 **Izmirimkart** 어플로 충전할 수 있고 이 어플에서 막차 시간, 배차 등 교통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페리 정보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Sahibiden**은 중고거래 어플입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30인치 캐리어를 처분할 때 **Sahibiden**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하였고 약 1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외국인이어도 현지 번호가 있으면 대부분 어플이 사용 가능합니다.

5. 파견 소감

튀르키예 파견을 결정했을 때에는 언어보다 여행에 더 초점을 두었지만, 한국인이 없는 환경에서 거주하며 영어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1학기, 2학기 모두 한국인은 저 혼자였으며, 1학기에는 일본인 친구가 2명 있었고 2학기에는 동아시아인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국가에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왔습니다. 최대한 많이 여행을 다니려고 하였는데 이즈미르는 튀르키예 도시들은 물론, 유럽 국가 대도시에도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국가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적은 낯선 도시에서 생활하며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한영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3, 컴퓨터과학
파견시기	2025 학년도 2학기부터 2026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Wisconsin Stout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 년 6 월 23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않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내용

1.지역

제가 파견된 UW-Stout 학교는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메노모니(Menomonie)'라는 중서부 소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메노모니 내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는 버거킹, 파파존스, 서브웨이 등의 프랜차이즈 식당과 편의점인 Kwik Trip, 베트남 음식점, 카페, 인형 뽑기 가게 등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10분 정도 나가면 월마트, 타코벨, 영화관, 펫샵, 볼링장, 포케 전문점, 골프장 등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인 오클레어(Eau Claire)에 가면 초밥집이나 쇼핑몰 등이 있어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미니애폴리스에는 노래방, 몰 오브 아메리카(Mall of America) 등 대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 가을 학기에는 학교 주변을 벗어나 넓은 지역을 여행하고 싶어 운전이 가능한 한국인 친구를 통해 렌터카를 빌리거나 메가버스(Megabus)를 이용해 주변 도시를 다녔습니다. 봄 학기에는 친구가 차를 구매한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놀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가을 학기에는 이동 범위가 다소 한정적이어서 가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봄 학기에는 지루할 틈 없이 활발하게 돌아다녀 오히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즐겁게 보냈습니다.

2.날씨

파견 초기인 9월부터 11월까지의 초반에 약간 더운 편이었으나, 이후에는 많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가장 이상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1월 말부터 2월까지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겨울 날씨는 4월 초순까지 지속되다가 4월 중순이 지나서야 비로소 날씨가

풀렸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추위를 덜 타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외출 시에는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주로 가까운 곳 위주로만 이동했습니다. 보통 한국인 교환학생들은 전기장판을 챙겨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제가 지낸 North Hall 기숙사는 내부 난방이 잘되어 전기장판 없이 이불 두 겹만으로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허리만큼 쌓여 다른곳으로 이동하기에는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고 다양한 겨울 액티비티를 즐기며 나름대로 낭만적이고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2.기숙사

교환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기숙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4인실이되 각자 개인 방을 사용하는 'Red Cedar Hall'과 2인 1실 구조인 'North Hall'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기숙사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d Cedar Hall: 매우 조용하며 개별 방을 쓰기 때문에 룸메이트와의 사생활 갈등이 거의 없고 요리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강의실이 밀집한 캠퍼스 중심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매일 운행되는 셔틀버스 시간표를 잘 활용하면 이동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North Hall: 제가 생활했던 곳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많고 강의실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국제 학생들이 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친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한국인 교환학생들이 이곳에 거주하여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2인실 방 자체가 좁아 개인 공간이 다소 부족하며, 많은 학생들이 부엌을 공유하기 때문에 Red Cedar에 비해 요리하기가 혼잡하고 세탁실 이용 역시 다소 붐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용하고 독립된 생활을 선호한다면 Red Cedar를 다양한 친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North Hall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외로움을 타지 않는 편임에도 North Hall을 선택했는데 국제 학생들과 함께 요리하고, 지하실에서 탁구를 치며 기숙사 큐브 공간에서 다 같이 새벽까지 시험공부를 했던 경험이 정말 값진 추억으로 남아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학업 및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파견 전 본교 입학 전에 미리 학교 공식 웹사이트에서 듣고 싶은 과목들을 탐색하고 학교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보낸 것을 바탕으로 입학 전에 학교 측에서 직접 일괄적으로 수강신청을 진행해 주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과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가을 학기 때 들었던 'Fundamentals of Communication'과 봄 학기 때 들었던 'Mobile Device Photography'입니다.

Fundamentals of Communication는 현지 미국인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아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단순한 이론 수업에 그치지 않고 게임이나 팀 프로젝트 등 학생 주도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Mobile Device Photography에서는 직접 카메라의 원리와 구도를 배우고 실습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해 결과물로 제출하는 과정이 재밌고 한국에서는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4.여행

약 9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며 매디슨, 시카고, 뉴욕, 애틀랜타, 샌디에이고, LA, 라스베이거스, 플로리다 등 다양한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사귄 친구들, 언니 집, 그리고 장학금 사업에서 지원해 준 숙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숙박비를 크게 절감한 덕분에 왕복 항공권을 포함한 총 여행 경비로 약 500만 원 정도만 지출하며 알차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매디슨은 학교에서 차로 3시간 거리라 주말을 이용해 로드트립으로 두 번 방문했고 시카고는 한 번은 비행기로, 다른 한 번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국제학생 단체 관광버스를 이용해 편도 5시간 거리로 다녀왔습니다. 방학 기간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틈틈이 주말과 연휴를 활용해 여행을 다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장학 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문했던 뉴욕, 추수감사절 주간엔 일주일 동안 미국인 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플로리다, 한국에서 놀러 온 친구들과 함께 여행한 서부, 그리고 다른 주로 교환학생을 간 친구와 만나 함께한 LA 여행까지 무엇 하나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샌디에이고'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유의 여유로운 미국 서부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광활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힐링을 받아 미국에 있는 동안 두 번이나 비행기를 타고 방문했을 정도로 애정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5.비용

저는 한학기는 정규교환 학생이었고 한학기는 장학교환 학생으로 2번째 학기에는 학비를 직접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KIAT에서 주관하는 장학 사업에 선발되어 학비와 기숙사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공계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 학기당 1,200만 원씩 총 두 학기 동안 2,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재정적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었습니다. 개인 생활비로는 한 달에 약 50만 원 내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캠퍼스 내부 식당이 한 끼에 약 3달러 수준으로 타 대학에 비해 식비가 현저히 저렴했고 학교 주변이 평화로운 시골 지역이라 소비 기회가 적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6.추가정보

메노모니 근처에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10분쯤 학교로 픽업이 와서 매주 한인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타우트를 졸업하신 졸업자 분과 우연히 알게되어 그 분 집을 자주 가면서 차를 얻어 타고 한식을 얻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허규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3, 컴퓨터과학
파견시기	2025 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California State University of San Bernardino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 년 7 월 14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1. 파견 전 준비 사항

- **파견교 선정 이유:** 제 파견교 선정 기준의 1순위는 좋은 지역과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전공 수업이나 주변 시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날씨가 거의 항상 좋으니 기분도 날씨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캘리포니아를 선택했습니다.
- **출국 준비 과정:**
 - 비자: 비자 발급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자세히 정리된 자료가 많아 이를 참고하며 준비했습니다. 비자와 관련하여 가장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귀찮더라도 절대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일찍 신청한 덕분에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비자 심사 과정이 SNS 계정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추가되며 까다로워져서 미리 준비한 것이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 수강신청: 파견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께서 수강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십니다. 주시는 자료 보고 따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이메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수강신청 전에 듣고 싶은 과목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학점도 계산하는 등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마다 교수님도 다르신데 미리 파악해두시면 좋습니다. 수업 일정과 수업 과목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후기와 교수님 평가를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수업이 어떤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Rate My Professors: <https://www.ratemyprofessors.com/>
 - 기숙사 지원: 국제학생 담당자께서 기숙사 신청하는 것도 메일로 자세히 안내해 주십니다. 설명 자세히 해주시고 관련 자료도 보내주시니 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학업 및 수업

- **전공 과목:** 저는 전공 실력을 보완하는 것보다 영어로 수업을 듣고 익숙해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았기 때문에 일부러 한국에서 수강했던 과목이나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과목들로 들었습니다. Computer Programming, Programming Basic, Computer Science 1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위 과목들은 수업 내용이 어렵지 않았고 교수님들도 모두 좋으셨습니다. 과제도 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과목명처럼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학년에 맞는 전공 실력을 쌓고 싶은 분들은 3-4학년 전공 수업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이론

수업 후 실습 수업이 진행되는데 실습은 필수가 아니라 과제를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공 외 과목:** 교양 과목으로는 교환학생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영어 글쓰기 수업, 한국어 수업, 심리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친구들 사귀기 위해 신청했는데 실제로 다양한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심리학 수업은 평이 좋아서 신청했는데 교수님도 매우 좋으셨고 수업 방식도 흥미로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컴퓨터과학은 전공 과목의 학점 배분이 애매한 편이라 원하는 만큼 교양 과목을 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전공과 교양 과목을 충분히 조사하고 여러 후보를 정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제 파견교에는 도자기 공예, 유리공예, 피아노나 기타와 같은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수업, 수영 등 한국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수업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과목들을 수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수업 분위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수업 중간에 질문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았습니다. 시험도 한국처럼 엄격한 분위기는 아니고 심지어 시험 중에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서 꾸준히 수업 나가고 성실히 해도 성적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성적 후하게 주시는 편이었습니다.

3. 캠퍼스 생활 및 교내 활동

- **기숙사 생활:**
 - 기숙사는 **Arrowhead Village**와 **University Village**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V**는 **UV**보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캠퍼스 안에 있어서 등교하기에 좀 더 편리합니다. **AV** 세탁실은 별도의 건물에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여러대 있어 차례를 오래 기다리는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일요일 특히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좀 몰리기 때문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에 입주하면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페이퍼를 주는데 같이 얘기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자 기숙사여도 남자친구나 친구들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문자로 미리 허락을 받는 규칙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기숙사에서 **RA**가 기숙사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자주 여는데 가시면 음식이나 간식 제공, 게임 같은 활동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캠퍼스 밖에 **Ralphs**라는 큰 마트가 있는데 저는 주로 그곳에서 장을 보고 직접 요리해 먹었습니다. 학생증이 있으면 버스를 무료로 타고 갈 수 있고 마트도 학교에서 가까워서 이동하기 편리했습니다. 마트 근처에 노숙자가 종종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올 때는 짐이 많아서 친구들과 같이 우버 불렀습니다. 차가 있는 친구들과 친해진 후에는 그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얻어타고 다녔습니다. 또 학교 바로 앞에 보바랑 아이스크림가게, 피자집, 아시안 음식점 등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걸어가도 위험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가 진 이후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학생들은 보바를 되게 좋아해서 친구들과 같이 자주 마시러 갔었습니다.
- **교내 활동:**
 - 튜터링: 수업 외에도 튜터링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매 학기 교환학생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튜터를 모집하시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튜터링을 통해 영어 실력도 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활동이다 보니 대화를 시작하기도 쉽고 친구 사귀기가 더 수월했습니다. 저 역시 튜터링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자주 같이 놀고 기숙사에 놀러가거나 차를 얻어타고 학교 밖으로 놀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한국어 수업이 끝난 직후 시간대로 튜터링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바로 오기 때문에 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튜터링이라고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만 답해주지 마시고 먼저 스몰토크를 하거나 다양한 질문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 분위기도 편해지고 학생들과도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 동아리: 동아리 박람회에서도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직접 구경할 수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동아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한국 문화 동아리가 있는데 한국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고 친구들을 사귀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싶다면 동아리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시설 이용:**

- 학교 식당: Commons라는 학교 식당이 있는데 가격에 비해 맛은 만족스럽지 않아 밀플랜 구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숙사에 살면 주방이 넓고 잘 되어있어서 요리해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1학년 학생들은 밀플랜 구매가 필수라 다들 가지고 있는데 자주 가질 않아서 1학년 친구들과 친해진다면 학교 식당에서 얻어 먹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Den: 학교에서 무료로 식료품들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일주일에 식료품 한 번, 간식은 두 번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 환율도 물가도 모두 높은 만큼 이용 가능한 횟수만큼 꼭 방문해 필요한 식료품을 받아 생활비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파스타 면, 우유, 계란, 토마토 소스, 채소, 과일, 과자 등 종류가 되게 많아서 고르는 재미도 있습니다. 오전에 가면 종류와 수량이 더 많아서 원하는 물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란은 인기가 많아서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찍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 Pfau 도서관: 도서관은 제가 캠퍼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혼자 조용한 곳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도 기숙사 방에만 계속 있으면 답답하거나 우울해질 때가 있어서 자주 도서관에 가서 혼자 공부하거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은 5층까지 있고 넓어서 갈 때마다 다른 자리에 앉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자리는 4층에서 왼쪽으로 두 번 들어가면 나오는 큰 창문으로 산이 다 보이는 자리입니다. 창밖으로 산이 한눈에 보이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가끔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도 구경했었습니다. 또한 스터디룸도 따로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그룹 프로젝트나 시험기간에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 GYM: 학교 헬스장은 시설이 매우 넓고 운동기구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최대한 자주 가서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클라이밍, 댄스, 스피닝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도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관심이 있다면 신청해서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 교내 스포츠 경기: 학교에서는 학생 선수들이 참여하는 배구, 농구,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자주 열립니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관람하면 미국 대학의 스포츠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한 번쯤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현지 일상 및 여가 생활

- **여행 및 문화 체험:**

- 학교에서 하는 Adventure Program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끼리 함께 여행하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인데 많이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신청이 빨리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 장소, 신청 일정, 참가비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곳을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조슈아 트리, 헌팅턴 비치, 요세미티, 스노쿨링, 디즈니랜드, 식스플래그 입니다.
- LA: San Bernardino Downtown 역에서 Metrolink 기차를 이용하면 약 2시간 이

내에 LA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차 내부는 위험한 편은 아니라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Downtown** 역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아 학교에서 역까지 이동할 때는 버스보다 우버나 리프트(Lyft)를 추천드립니다. 한 번 버스타고 역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버스가 덜컹거림이 심하고 이동 시간이 길어서 그 후로는 리프트 불러서 갔습니다. 물론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밤에는 샌버나디노 **Downtown** 가지 마세요. 거기서 아침에도 이상한 사람들 많고 위험해서 밤에는 절대로 가시면 안됩니다. 밤에 한 번 갔다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ㅎㅎ; / **Las Vegas**: 겨울 방학에는 LA와 LV를 여행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랑 그랜드캐니언은 따로 현지 투어를 신청해서 다녀왔고, LA에서는 버스, 지하철, 웨이모 타고 다녔습니다. LA에서는 웨이모가 우버나 리프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가격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여행지는 조슈아트리입니다. 두 번이나 방문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또한 빅베어는 보통 스키 타러 가는 곳인데 눈이 많을 시기나 적절한 때에 맞춰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생활비 및 경제 관리**: 한 달 평균 식비, 여행 경비, 생활비 절약 팁
 - **카드**: 저는 **Bank of America**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발급받아 사용했습니다. 1년 지내는 분들은 미국에 도착한 후 가능한 빨리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Chase**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시 200달러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이 있다고 해서 여러 은행 혜택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귀국하기 전에는 은행을 다시 방문해 계좌 해지했습니다. 한국에서 토스카드와 트래블 월렛도 가져갔는데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 미국 카드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Apple Pay** 등록해서 사용하면 결제가 편해서 거의 이것만 이용한 것 같아요.
 - **송금 및 환전**: 처음에 현금을 어느 정도 준비해 가서 계좌 개설할 때 다 입금해 사용했습니다. 이후에는 '모인' 앱을 이용해 한국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뒤 미국 계좌로 입금시켜서 사용했습니다.

5. 종합 평가 및 조언

- **총평**: 저는 다시 돌아간다 해도 교환학생을 꼭 선택할 만큼 이번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분들께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만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영어 실력 향상과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계속 생각하며 지내다 보니 실제로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독립심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크게 늘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경험이었습니 다. 영어로 말하는 것이 두렵거나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정말 아쉽게 시간을 보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기 전 영어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지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직접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넘쳐나니 노력한다면 충분히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다면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구를 사귀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운 표현을 바로 실제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할 때보다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느꼈습니 다. 또한 학교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셔서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업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영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학생들은 완벽한 영어 실력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도 늘고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홍애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3 / 화학에너지공학과
파견시기	2025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 년 7 월 3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1. 캠퍼스

다른 교환학생 보고서에서도 많이 언급되듯이 UCM은 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같은 도시 환경을 기대하고 오신다면 다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도보 중심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편인데, Warrensburg 역시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주변에는 Walmart, Hy-Vee, Marshall과 같은 대형 체인 매장이 있으며, 산책하기 좋은 Lion's Lake도 있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교내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Recreation Center (체육관), 볼링장, 미식축구 경기장 등이 있으며, 저는 특히 체육관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또한 무료 볼링 데이가 열리는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볼링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 근처 문화센터에는 수영장이 있어 친구들과 주말에 다녀오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이용 요금도 저렴한 편이며, 실내에는 워터슬라이드와 스파 시설도 있어 운동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내기에도 좋습니다. 저 역시 친구들과 종종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 기숙사

저는 East Ellis, Fitzgerald Hall, 그리고 The crossing까지 총 세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East Ellis>

처음에는 기숙사 신청을 늦게 해서 East Ellis에 배정받았습니다. 많은 교환학생들이 이야기하듯 시설은 다소 오래된 편입니다. 특히 룸메이트와 같은 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학기 초에 룸메이트가 본가로 돌아가게 되어 혼자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건물 전체가 오래된 편이기 때문에 한국의 신축 기숙사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많았습니다. Rec center와 가장 가까운 기숙사라 운동하기 편했고,

Ellis Dining hall이 같은 건물에 있어 식사하러 가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1층에는 풋볼 시설이 있어 친구들과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렇기에 Ellis에 배정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Ellis에서 친구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모든 시설이 가까워 생활하기 편했습니다.

<Fitzgerald Hall>

학기 중 방을 옮기면서 Fitz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기숙사였습니다.

방 구조는 Ellis와 거의 동일하지만 건물이 훨씬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Ellis에는 신입생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특히 목요일 밤이면 매우 시끄러운 경우가 많았지만, Fitz는 비교적 차분한 환경이라 생활하기 편했습니다.

또한 Ellis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Fitz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짐을 옮기거나 생활할 때 훨씬 편리했습니다.

<The crossing>

2학기에는 The crossing에서 생활했습니다.

The crossing은 UCM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숙사 중 하나로, 저 역시 가장 만족했던 곳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룸메이트와 방을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 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방이 있어 직접 요리를 할 수 있으며, 화장실과 거실, 부엌 등의 모든 시설이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The crossing에 배정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1학기 동안 대기한 뒤 2학기에 The crossing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착 후 바로 입주 신청을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쇼핑 및 장보기

생활용품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Walmart 서들을 이용해 대부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근처 Hy-Vee에서는 김치, 비비고 핫반 등 한국 식품도 판매하고 있어 간단한 한식을 즐기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Warrensburg에는 아시아 마트가 없지만, Kansas city까지 약 1시간 정도 이동하면 Pan-Asia Market이 있습니다. 차가 있는 친구와 함께 다녀오면 다양한 한국 식재료와 아시아 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평소에는 Walmart를 이용하였고, 한식을 만들어 먹거나 한국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Pan-Asia를 방문했습니다.

Walmart 맞은편에는 Aldi도 있습니다. 규모는 조금 작지만 과일과 채소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 신선식품을 자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쇼핑은 주로 Kansas city에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Oak Park Mall과 Legends Outlets을 추천드립니다.

- Oak Park Mall은 스타필드와 비슷한 대형 실내 쇼핑몰로 다양한 브랜드와 의류 매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 Legends Outlets은 Oak Park Mall보다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야외형 아울렛이라 가격이 더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Oak Park Mall에는 없는 Gap과 Polo 등의

브랜드도 입점해 있어 쇼핑하기 좋았습니다.
문화생활 역시 **Warrensburg** 보다 **Kansas city**가 훨씬 다양합니다. 차가 있는 친구와 함께 다녀오는 것이 가장 편리하지만, 여럿이 **Uber**를 함께 이용하면 교통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다른 주 여행

UCM에는 **Fall break, Thanksgiving break, Winter break, Spring break, Summer break** 등 여러 방학이 있습니다.

저는 방학을 이용해 **Washington D.C., Florida, Chicago, Texas, New York** 등을 여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부 지역이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차량 없이도 여행하기 편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는 **Chicago** 였습니다. 시내 일부 지역은 다소 조심해야 했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도시 풍경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Warrensburg**에서는 **Amtrack**을 이용해 **Chicago**까지 이동할 수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Washington D.C.는 수도답게 비교적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Smithsonian** 박물관을 비롯해 많은 관광지가 무료여서 여행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는 방학을 적극 활용해 평소 가보고 싶었던 도시를 여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미국은 주마다 분위기와 문화가 크게 달라 여행하는 재미가 매우 큼니다.

5. 학교 공부

저는 **Speaking, Writing** 수업과 전공 수업, 교양 수업을 모두 수강했습니다.

첫 학기에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고 다양한 국제학생들과 교류하고 싶어 어학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Speaking**과 **Writing** 수업을 통해 영어 실력이 단기간에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학 수업은 모든 학생이 국제학생이다 보니 발표나 토론에 대한 부담이 적었고, 교수님도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행사와 체험학습도 진행되어 영어뿐 아니라 미국 문화를 경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공 수업으로는 **Biochemistry**와 **Calculus**를 수강했습니다.
Calculus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성실히 공부했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Biochemistry**는 전문 용어가 많아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수업 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강의 영상과 수업 자료(PPT)를 활용해 복습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전공 학점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평소 관심이 있었던 다른 전공이나 교양 과목을 들어보는 것도 교환학생에서만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6. 마음가짐

저 역시 미국에 오기 전에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해 보니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대부분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찾아오고, 결국 그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점은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또래 친구들이라면 관심사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갑자기 수업을 취소하면 모두 좋아하고, 평일에는 주말을 기다리고, 쉬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도 한국 학생들과 똑같습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면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조금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미국에 가기 전에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지?’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생활해 보니 친구는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따라 동아리를 가입하다가, 운동을 하려고 **rec center**에 갔다가, 수업에서 조별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거나 관심사를 물어보는 작은 용기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부담을 갖기 보다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환학생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하면서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고, 가족이 보고 싶거나 외국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면 그런 순간들조차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너무 전공 공부나 영어 공부에만 얽매어 스트레스 받기 보다는, 미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이 여러분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행복한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황재원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경영학부&의류학과(복수전공)
파견시기	2025학년도 2학기부터 2026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CM(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6년 6월 9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저는 2025년 가을학기부터 2026년 봄학기까지 2개 학기 동안 미국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UCM)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였습니다. 경영학부와 의류학과를 복수전공하지만,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는 주로 의류학과 전공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UCM 에서 수강한 의류학과 수업들은 대부분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상 제작, 디자인 및 관련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론 위주의 수업보다 더욱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습 위주의 수업 특성상 언어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으며, 성실하게 참여한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미국 대학의 교육 방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캔자스시티 패션위크(Kansas City Fashion Week) 자원봉사자로 두 차례 참여한 것입니다. 패션쇼가 준비되는 과정부터 행사 운영까지 직접 경험하며 패션 산업 현장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UCM 졸업 패션쇼에서는 졸업을 앞둔 4 학년 뿐만 아니라 모든 의류학과 학생들이 학년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어 제가 직접 제작한 의상을 입고 모델로 참여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작품 제작뿐만 아니라 이를 무대에서 선보이는 과정까지 경험하면서 의류학과 학생으로서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업 외에도 다양한 도시를 여행하며 미국 문화를 폭넓게 경험하였습니다. 캔자스시티, 시애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마이애미, 세인트루이스 등을 방문하였으며 각 도시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UCM 이 위치한 워렌스버그에서는 암트랙(Amtrak)을 이용하여 캔자스시티, 시카고, 세인트루이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직접 암트랙을 이용해 세 도시를 방문하였는데, 차량이 없는 교환학생들에게 비교적 편리하고 경제적인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가장 아쉬웠던 점은 학교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UCM 인근에는 작은 규모의 다운타운 외에는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아 차량이 없는 학생의 경우 활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가 없는 학생들은 주말이나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친구를 사귀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꾸준히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교환학생 생활은 단순히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이 있다면 언어 실력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 생활은 학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패션위크 자원봉사 활동과 졸업 패션쇼 참여는 전공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혀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UCM 으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행과 교류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의 경험은 학업적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